

관리 사각지대 놓인 가설 건축물

벽면녹화 조성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

서귀포시, 존치기간 지난 불법 가설건축물 1200건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되거나 방치... 관리 허술

공사용 현장사무실이나 임시창고 등 존치기간이 3~5년인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 허가·신고 없이 계속 사용되거나 미사용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등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1191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받는 등 일제정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에 있는 총 가설건축물이 3322건임을 감안하면 35.9%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과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는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가설건축물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음을 말해준다.

건축법(제20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시·농촌시장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제주도건축조례(17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5년, 신고대상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도지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 신청과 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2017년 8월 이전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943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247건의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과 기간연장 여부를 알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지난달 15일 철거·연장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접수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존치기간 연장 111건, 철거신고 110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건에 대해 현장확인 후 가설건축물대장 말소나 존치기간을 연장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일제정비 기간 운영과 함께 앞으로 존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 안내문 발송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청 별관 외벽에 조성 잡초 우거져 도시미관 저해 녹지공간 확보 취지 '무색' 교체비용만 수억 소요 예상 시 "관리업체 없어 어려움"



서귀포시청 별관 외벽에 조성된 벽면녹화가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있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가 시청사 별관 외벽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시는 녹지공간에 식재된 녹화식물을 교체하는 데에만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풍 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1월 지하 2층, 지상 6층 8417㎡ 규모로 청사 별관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별관 건물 전면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별관 외벽에 벽면 녹화를 추진했다.

당시 별관 외벽에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제주도 지역에 많이 자라는 식물인 '낙죽고사리'와 '산수화' 등의 녹화식물이 식재됐다. 이후 시는 시공업체를 통해 청사 별관 완공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벽면 녹화식물에 대한 보수·관리를 받아 왔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보수·관리 기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수·관리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시는 제주도내에서 벽면 녹화식물을 보수·관리할 업체를 찾지 못해 녹화식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녹화식물을 교체하는 데에만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풍 교체 사업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까지 별관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벽면 녹지공간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청사를 찾아 별관 외벽을 확인한 결과 별관에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한 등 잡초밭을 보는 듯 했다. 이처럼 잡초가 무성한 녹지공간은 주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당초 별관 증축 당시 행정의 녹지공간 확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시청을 찾은 양모(32)씨는 "청사 별관 외벽이 잡풀로 우거져 지저분해 보인다"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청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도에 벽면 녹화식물을 보수·관리하는 업체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녹화식물)보수·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현재 식재된 식물에 대해 녹화식물 적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도·교육청, 처리난 친환경농산물 소비 앞장

개학연기로 식재료 처리 우려 공동구매로 선제적 처리키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식재료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얼갈이와 시금치, 쪽파 등 15개 품목(19t) 식재료 처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일 도교육청과(사)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저장성이 불가능한 긴급처리 물량 업체류 10t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필요 시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협력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무농약 이상 업체류를 중심으로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등 6개 품목(2.4kg 1박스 1만원)으로 구성된다. 공동구매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결과 공개 추진

제주 천연동굴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방안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

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천연동굴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다.

제주도민에게 지하에 있는 천연동

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혀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사파리 뺨 자연체험파크 개발 승인 '코앞'

13일 제주도 도시·건축위

사파리 이름을 뺨 '제주자연체험파크'가 개발사업 승인 직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주자연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부지 면적 74만4480㎡ 가운데 50%가량에 들어서는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사용 계획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 계획이 통과되면 개발

진행지구로 지정되고, 절차는 개발사업 승인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된 >공유지 제척 >북촌리 마을과 상생협약 체결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꽃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휴양기능 추가해 자연체험 강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이 모두 완료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된다면 사실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이제 남은 단계는 개발사업 승인"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모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은희 원장이 오는 30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대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연구원으로 우원·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구원장 응모자격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연구원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 등이다.

오은지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영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